

“ 시내버스 재생타이어 괜찮나요 ”

서울 등서 잇단 파열사고 승객들 불안

광주 800여대 대부분 장착 ‘조마조마’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의 시내버스 뒷바퀴에 원가절감을 위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생타이어는 새 타이어보다 열에 약해 최근 파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와 광주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광주시역 10개 업체 896대의 버스 대부분이 뒷바퀴 4개를 폐기된 뒤 고무를 붙여 짜낸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 업체들은 재생타이어의 가격이 개당 15만원 선으로, 새 타이어보다 10여만원 저렴

해 선호하고 있다.

또 버스업체는 재생타이어의 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 폐타이어를 제공, 추가로 5~6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 원가절감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재생타이어의 수명은 8개월 정도로 12~15개월 사용 가능한 새 타이어보다 4~7개월이 짧지만, 실제 사용기한은 업체들이 개별적인 점검을 통해 정하고 있어 이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

광주지역 한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광주에서는 한 번도 파열된 적이 없으며, 수시로 점검반을 가동하고

있어 고객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며 “하지만 최근 한 여름 섭씨 30도 이상인 날이 계속되면서 아스팔트 지열로 인해 파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점검반이 육안으로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명확한 점검항목과 사용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높다.

이같은 실정이 알려지면서 시내버스 승객들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청주, 대구, 울산 등에서 시내버스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과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이어졌다. 새 타이어보다 압력에 견디는 힘이 약한 재생타이어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승객 정모(45)씨는 “시내버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버스를 탈 때마다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걱정한다”며 “원가절감도 좋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타이어 전문가들은 갈수록 여름마다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여서 열에 약한 재생타이어의 파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타이어 연구소 관계자는 “폐타이어 자체가 탄력

이 떨어져 있고 열을 가해 타이어 형태를 복원시켰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재생타이어는 열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현식기자 chadol@



충장로 축제 ‘소망 터널’

‘추억의 7080 광주 충장로 축제(10월5~10일)’를 한달여 앞둔 1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에 시민들의 소망메시지가 적힌 ‘소망터널’이 완성돼 행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교 성폭력 최근 3년간 159% 늘었다

2006년 38건서 작년 96건으로 증가

전국 초·중·고교 학생간 성폭력이 지난 3년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생간 발생한 성폭행(249건), 성희롱·성추행(120건) 등 성폭력은 모두 369건에 달했다.

특히 2006년 38건에 불과했던 학교 성폭력은 2009년 96건으로 153%나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만 88건이 발생해 월평균 12.6건으로 연말까지 15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중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49%(182건), 고등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46%(169건)로 반반이었다. 초등학생은 18건으로 5%를 차지했다. 그러

나 고등학생은 2006년 전체의 66%에서 올해 7월 41%로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같은 기간 34%에서 55%로 급증했다. 또 성폭행의 경우 2008년에는 집단 성폭행이 67%로 단독 범행 3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나 올해 7월 현재 집단 성폭행은 45%, 단독 성폭행은 55%로 그 비율이 역전됐다.

또 이 기간 전체 가해학생의 29%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11%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집 나간 60대 여자

광주호서 숨진채 발견

12일 오후 3시50분께 담양군 고서면 광주호에서 정모(여·69)씨가 물에 떠 숨져있는 것을 낚시객(2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집을 나간 뒤 가족들에 의해 신고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씨가 10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는 유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타짜·꽃뱀·호구·탄...

영화 ‘타짜’가 현실로

수억 가로챈 사기도박단 19명 검거

광주·전남을 무대로 이른바 ‘꽃뱀’과 ‘타짜’ 등을 동원해 역대 사기도박관을 벌여온 사기도박단 일당과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2일 ‘꽃뱀’이 유인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해 역대 관돈을 쟁취한 혐의(사기)로 총책 김모(56)씨 등 4개 사기도박단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꽃뱀’ 김모(여·45)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 사기도박단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 6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도박단 19명은 지난해 9월부터 9개월여간 광주·전남 식당 등지에서 속칭 ‘월남빵’ 등 도박관을 벌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투패의 순서를 미리

조작하는 이른바 ‘탄’ 등 각종 ‘기술’을 총동원해 피해자들을 노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총책이 범행을 계획하면 앞선책이 속칭 ‘호구’(피해자)를 선정한 뒤 ‘꽃뱀’이 술자리 등에서 피해자를 도박관으로 끌어들었다. 도박관에선 ‘타짜’라 불리는 기술자, 도박에 참여하는 ‘바람잡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산상’ 등 5~8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꽃뱀’ 외에도 지역 내 주점업주나 부동산업자 등을 유인책으로 활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이견주 차장검사는 “사기도박단이 워낙 치밀하게 범행을 한 데다 ‘타짜’를 이용한 사기도박은 증거도 남지 않아 대부분 피해자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밝혔다./최경호기자 choice@

금품선거 농협 이사 3명 자격박탈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도근 판사는 12일 농협 이사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장성근 모 농협 지소 이사 유모(56)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 등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

우, 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농협법에 따라 이사 직위를 잃게 된다.

유씨 등은 지난 1월 말 예정된 지소 이사선거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60만~140만원을 건네고,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등은 경선에서 가장 낮은 득표를 한 김모(51)씨가 사퇴함에 따라 모두 무투표 당선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여중생 협박 성폭행 기도 30대 영장

광주동부경찰은 12일 여중생을 협박해 성폭행하려한 고모(35·남구 사동)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용산동 농로에서 광주 모 중학교 3년 A(15)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1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5일 전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길을 잃어 도움을 요청한 A양을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불러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은 정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 인재를 유치해 지역 교육대학의 존립을 안정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씨 등은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8118) **김장두**



공공시설물 파손 신고

광주시 포상금 지급

벤치나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2일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총괄 부서와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포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건당 100만원, 개인 별 월 지급 한도액을 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윤현식기자 chadol@

신정환 역대 도박..땡기병 자작극

○땡기병에 걸려 필리핀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고 주장한 신정환이 사실은 현지에서 도박을 했으며 땡기병에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

○신정환을 11일 필리핀에서 만난 그의 한 측근은 12일 국제전화통화에서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역대 도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여권을 빼앗긴 것도 사실”이라며 “땡기병에는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측근은 “신정환이 궁지에 몰리자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모든 걸 인정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대책을 세우자고 설득했으나 그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7일 녹화가 예정됐던 세 개의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광크네 물의를 빚었던 신정환은 필리핀에 체류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9일 자신의 팬 카페에 병원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여행 중 땡기병에 걸려 병원에서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0월에 시작하는 5개월 완성프로젝트

10월 신규반 특설, 상위권반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이제부터 노하우와 정보력이 편입 합격을 결정한다. 34년동안 합격생 수 1위, 김영의 증명된 성공전략과 14만여 명의 합격자를 분석한 데이터를 믿고 흔들림 없이 도전하라!

통쾌한 편입성공 9월에 시작하라! 34년 연속 대학편입 합격자수 1위

김영편입학원

개강 10월 1일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개강 10월 4일